

# ‘국힘 전대’ 내년 3월 초 유력... ‘윤심’에 시선 집중

### 비대위원 전주혜 등 로드맵 제시...당원 투표 비율 90%로 확대 기류 전대준비위, 다음주 활동...김기현·권성동·나경원 ‘친윤계 주자’ 거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논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시기와 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해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4인방 회동, 이후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 만찬이 전대 논의를 촉발하면서 윤심(윤대통령 의중) 여부를 놓고 당 안팎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8일 당 회의에서 “다음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전당대회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25일 지도부 만찬 뒤 첫 회의에 나온 언급이라, ‘윤심’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만찬 직전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랐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재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지칭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시기나 물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가 구성하는 전대준비위원회(전대준비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대준비위는 이번 주말께 구성이 완료되고, 내

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당내에서는 ‘3월 초 전당대회’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3월 임기를 거론하며 “비대위 임기 중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3월 중순 비대위 임기만료를 즈음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친윤계 기류는 한층 선명하다.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윤해관 4인방’인 권성동·장재원·윤찬홍·이철규 의원을 관저로 불러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뒤로 더 확실히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한 핵심 인사는 전당대회 개최 마지노선을 내년 3월 초로 못 박고, “곧 전대준비위를 띄우고 12월까지 물 정리를 마친 뒤 1월에 TV토론을 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과 관련해선 친윤계 주류는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고민하는 기류다.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재 7대3에서 최대 9대1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당 대표와 대권주자는 다르다,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율 개정을 밀어붙이면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주류 당권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는 친윤계가 전당대회 시기나 물 변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권 주자 교통정리 국면에서 잡음 없이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김기현 의원, 권성동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자전단친 친윤계 주자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인사는 “결국은 ‘윤심’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원조 윤해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장재원 의원이 불화설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친윤계 교통정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힘, 국조 보이콧 논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꿀잼도시 광주’ 대표 상품 육성”

### 강기정 시장 ‘월요대화’ e스포츠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시가 1020 MZ세대 등을 겨냥한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꿀잼도시 광주’ 대표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시청에서 전문가, 대학생 게이머 등을 초청해 각계 소통 행사인 ‘월요 대화’를 했다. 2020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내에 1005석 규모 주 경기장, 160석 보조 경기장을 갖추고 개관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의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주희 광주 e스포츠 대학연합 동아리(G.G.W.P) 대표는 “게임에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게이머들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잘

들이 달라”고 요청했다.

강예람 G.G.W.P 전남대학교 대표는 “동아리나 소규모 개발자들이 인디게임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홍보 등의 문제로 게임을 할 사람이 없다. 요리를 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생들이 만든 게임으로 대학리그를 열고 게임개발자나 프로그래머를 육성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본 센다이시와 베트남 응에안성 등 자매도시를 초청해 글로벌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다음 달 15일에는 ‘철권’의 살아있는 전설인 ‘무릎’ 배제민 선수 등이 참여하는 e스포츠 특별전이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

## “경제난·가뭄·인구 감소 극복”

### 김영록 지사 실국장 정책회의...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대책 등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시대’에 대응한 도 차원의 지역경제 대응, 창 의적인 가뭄 대책, 인구 감소 극복 방안 등을 실국 장들에게 주문했다. 또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원인을 현장에서 면밀히 분석, 확실한 대책을 세워 차단할 것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가금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 엔자가 순식간에 5건이나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수평전파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야생조류와 소하천 등에서 광범위하게 오염돼 철새 등이 가금농장에 묻혀 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장을 철저히 살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판단, 농가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3고 시대’로 기업, 주민 등의 경제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의 신속한 대책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역경제 파장이 크고 특히 겨울철 취약계층의 삶이 걱정된다”며 “가정용 난방유가 50% 이상 오른데다, 농어업용 면세유도 올라 지원 했지만 부족한 만큼, 도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가뭄이 극심한 가운데 단비가 내려 발작물 해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업용수 부족과 식수난은 계속 될 것이므로,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예 없애버리고 가뭄대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정치개혁 2050 “양당 독식 종식위해 소선거구 폐지를”

###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이 광주에 모여 “소선거구가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 하고 있다”며 소선거구 폐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9일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2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 그 중에서도 소선거구 폐지가 가장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과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 민주당 이동 학 전 최고위원과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과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 회에는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 승자만이 독 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정치 때문”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선거인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로,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양당 기득권을 보호하는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정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는 절망만 남을 것이고 내가 더 잘하기보다는 상대방 이 더 못 하기만을 기다리는 정치만 남을 것이며 어려운 민생 담론 대신 쉬운 증오 경쟁에 몰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고 비전과 가치, 정책을 놓고 다투는 정치의 본령을 복귀해야 한다”며 “이를 위 해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바 꾸 다양한 정책들이 공존하고,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주목성 뛰어나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